



산란된 알과 갓 부화한 약충



성충



어린 약충



노령 약충



산란 피해



감귤가지에 산란한 모습



황색끈끈이트랩 포획 모습

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760-7364
농업기술센터: 제주760-7763, 서귀포760-7842, 동부760-7643, 서부760-7942

기후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감귤 해충

산둥날개매미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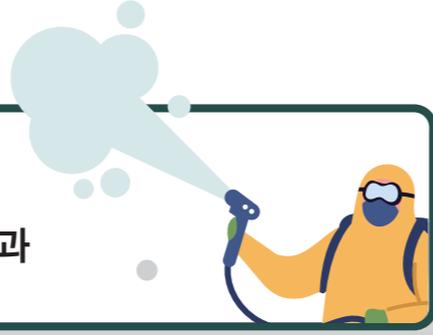
예찰이 필요합니다!



산둥날개매미충(가칭)

학명 : *Ricania shantungensis*

분류학적 위치 : 노린재목 큰날개매미충과



발생

- 2012년 국내에 첫 발생이 보고됨
- 제주지역에서는 2017년 비농경지(산림)에서 발생함
* 2019년 친환경 감귤원에서 발생 확인됨

형태

- 성충 수컷 7.5~7.8mm, 암컷 8.3~8.8mm, 짙은 갈색 날개
- 유충 선녀벌레 약충과 비슷, 4령부터 머리~앞가슴 등판에 6개의 반점이 있음

생태



- 연 2세대 발생, 가지나 잎맥에 산란된 알로 월동
- 월동세대 4월 알(월동)이 부화, 7월경 성충 발생, 8월부터 산란
- 1세대 8월 월동세대 산란 후 약 7일째부터 부화, 9월경 성충 발생, 10월부터 산란
- 9월 이후 산란한 알은 부화하지 않고 알 상태로 월동, 성충은 12월까지 관찰됨

피해

- 현재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나 일부 관리가 소홀한 과수원과 친환경 감귤원에서 발생
- 성충과 약충은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고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증상 유발
- 성충은 톱니 모양의 산란기관으로 가지와 잎맥의 조직을 파내고 산란
- 산란피해에 의해 가지마름, 고사, 가지 부러짐 등의 증상 발생

예찰 및 방제

- 산란한 알은 방제효과가 떨어지므로 전정 등을 통해 제거
- 성충은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예찰 및 방제 가능(1.5m 높이로 설치)
- 현재 등록된 약제가 없으므로 고삼, 님 추출물 등의 유기농업자재를 어린 약충시기(4월, 8월)에 살포해 방제해야 한다.
- 기주식물

감귤*, 대추*, 아왜나무*, 보리수나무*, 동백나무*, 말채나무*, 호랑가시나무*, 예덕나무, 멀구슬나무, 팔손이나무, 찔레, 보리장나무, 개복숭아, 인동덩굴

*표시 식물에 알을 낳아 월동